

큰 스님 수행한담

법보시 공덕만 못해요”



◇당대의 고승들과 함께 한 범종스님(뒷쪽 왼쪽에서 5번째).

제대로 선정에 들면 몸이 무리가 없고 의식은 성성(惺惺)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참구가 간절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면 잠을 사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참구한다고 했지 참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선학원도 옛 현관에는 '조선불교종양선리참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구(參究)라는 말이 사라져 가는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만을 잡고 공부하는것이 참구이지요. 화두의에는 다 망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서산대사는 화두는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이라는

나. 지구는 성주공(成住壞空)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돌아가니 고정된 실체란 게 없고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만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꿈을 꾸면 꼭 생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깨달고 보면 생사도 다 꿈에 지나지 않아요. 삼계(三界)가 대동(大夢)임을 아는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입니다. 지난 밤 꿈에기를 하며 걸가는 두 나그네의 모습도 꿈속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 앞마당까지 차타고 와서야 무슨 사유할 시간 있겠습니까 일주문 앞에서부터 바람소리 들으며 자기자신 되돌아 보며 올라오세요”

요즘은 세 끼니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까지 먹습니다. 값진 것을 찾아먹고 또 어지간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동차도 온갖 좋은 것은 다 타고 다니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고 추워야 공부 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고 따뜻해서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배 부르고 따뜻하니 잡생각만 날수밖에요. 옛날에는 그저 걸말하나 메고 어느 선 지식이 선지(禪旨)에 밝다. 어느 경전에 밝다는 말만 들리면 찾아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쇠퇴했어 요.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지만 다 자기 것이 아니지요. 뱀새처럼 피만 남아서 다 안다고 지껄이지만 알음알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불자들이 생활속에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합니다. 의화를 좀 밟았다고 흥청망청 남비하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소에 오계를 엄격히 지키고 화

든게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화엄경>을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가르침을 주셨던 한암 스님을 수행의 귀감으로 삼자는 뜻이지요. 내가 27, 8세 되었을때 오대산 상원사 승려수련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각 교구에서 대표를 뽑아 승려수련소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는 유점사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금강경> <보살보살> <육조단경> <화엄경> 등을 공부했지요. 그때 한암스님이 화엄경에 토를 달아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경을 읽으면 토가 술을 나왔어요. 당시 연세가 일흔이상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책이 귀해서 돌려가면서 읽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경전공부 하고 싶어도 교재가 없어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니다. 젊은 스님들은 책을 만져보 기조차 힘든 시절이었지요. 수타사에 머무는 때 봉은사원이 나와서 구입했는데 토가 달리지 않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한암스님이 수타사로 오셨습니니다. 스님이 상원사에서 토를 달면서 화엄경을 강의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스님, 상원사로 돌아가시면 그걸 좀 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스님은 "그걸 누가 힘들게 운반해 주나.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 얼른 따라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가져왔던 화엄경(토를 달일이 단 80권 1집)을 영인해 필요한 곳에 법보시했습니다. 한암스님이 후학들을 위해 정성들여 토를 달아놓은 귀중한 책으로 한암스님처럼 열심히 공부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많은 경전을 보았지만 결국 요약하여 말하면 계정해(戒定慧)로 귀결됩니다. 계는 그릇이요 정은 물이요 혜는 달로 비유되는 명경지수같은 본래 마음자리라고 하지요. 계는 신구(身口意)로 짓게 될 악업을 방지하는 것이요, 정은 산란한 마음을 한 경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졌을때 경성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얻기 어려운 사람들을 얻었으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진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만 알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법사 아니라도 불자는 이웃교화 해야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오히려 공부못해

세 발이 달린 숲과 같아서 하나만 모자라도 그 숲은 넘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신유십분(信有十分)하면 의유십분(疑有十分)하고 의유십분하면 오유십분(悟有十分)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크면 깨달 음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들 보면 믿는게 십분(十分)은 커녕 이, 삼분도 안 가지고 가요. 불자라면 첫 조건이 믿음입 니다. 신심으로 공부해야지요. 유명한 스님들한테 화두만 얻어 가면 무슨 소용있 나요. 철저한 믿음속에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중요하습니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는 조금해지려는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 로 모아 쉼으로 나아가는게 마음 공부인데 조급한 생각을 내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생주이멸(生住異滅)합니 다.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보름부터 그믐 까지 끝없이 생주이멸을 반복합니다. 육 신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칩

두를 집요하게 참구하는 생활을 하다보 면 모든 면에서 에너지가 헛되어 남비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도 없으면서 절 안마당까지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비로암 뒷마 당에 주차장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앞마 당에 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절 앞뒤로 주차장이 생겨 절이 마치 샌드위 치대체 맞가지나 됩니까? 셀 수도 없습니 다. 거기에 꼬달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제 린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불 독에 얼굴이 비치듯 진리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빗방울이나 안개가 가 리듯 경성성불은 어렵습니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먹지 않는 다'는 백장정규로 유명한 중국의 백장스 님때 충실이 생겼는데 충렬에 저버지는 연기가 나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녁은 굶 었지요. 밥을 못먹고 고프다 못해 배가 아프면 기왓장을 데워서 배를 문질렀습 니다. 그걸 '약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한이 이렇게 굶주리게 된 것도 다 자업자득입니다. 협동농장이 워니해서 공동생산·분배를 하다가보니 농사일에 애 착이 없어요.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악 착같은 마음이 없으니 갈수록 생산이 줄 어들 수 밖에요. 게다가 지도자가 덕이 없으니 흥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모

회두참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 회두를 듣고 참선공부를 해보 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화두 드는 것을 권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문지현·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좌선이든 행선이든 입선이든 다 통틀어서 생활자체가 참선입 니다. 생활자체가 천백백 공안 아난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 민사가 다 그렇 습니다. 저 다리가 많은 그림자가 서로 엉 키지 않고 잘 가는데 이렇게 발이 많 아도 엉키지 않고 잘도가는구나 하다 가는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잘 해나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을 수백에 비유해 봅시다. 작년에 거든 수박씨를 올 봄에 심 어서 다시 수박이 열렸습니니다. 그러면 수박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인가 뭔가를 받아서 그게 뭐냐고 참선을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과거 의 내 씨를 찾는 겁니다. 작년 씨는

부처님은 나 있는 곳 어디에나 계 십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내가 잠 자리에 들면 또 거기 에 계십니다. 아이들도 마음공부 배웠으면... 아이들에게도 마음도리를 알 게하고 싶은데 평정만 부리기 일수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관심을 갖 게 할 수 있을는지요? <김해주·서울 은평구 대조동>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며 사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 만 그러면서 이 도리를 공부하는 것 은 참으로 큰 일이지요. 살아 생전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나의 목은 빛 조 상의 목은 빛을 갈을 수도 없애 래로는 햇빛을 비취 줄 수도 없습니 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울 때 에 이파리나 가지구에만 관심을 기울 여서 씻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단스 래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뿌리를 외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것은 마치 바깥으로 기도하며 타력에 서 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 영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 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사원 대법스님께 묻고 답을 통하여 편집자가 정리·개제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벌써 싸이 터서 올해의 수박으로 화 하고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지금 자기 안에 수박씨가 있 는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나기 이전 가서 씨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얽매어서야 어디 이 시대의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개개인에게 모든 재료가 다 충 만해 있어서 누구라도 그 재료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게 백지장 한창의 차이를 몰라서, 그만 엄청난 시련을 겪 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선이든 참선이든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알람스 러 워서 좌선을 한다하면 '내가 좌선을 한다'고 하거나 '시간 맞춰 해야지' '이쯤했으면 오늘은...' 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 좌선만이 공부고 좌선할 때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라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 그치면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또 앉았을때 공부가 되고 일어나면 그친다고 한다면 앉았다가 일어났으 니 그게 도무룩이게요. 그러나 내가 앉는다, 선다 하는데 걸리지 말고 자 연스럽게 여유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못한다도 없습니다. 서서 하건, 누워서 하건 뛰면서 하건 어느 것 하나 참선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전체가 다 참선이다 이것입니다. 그렇 지 않다면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시다 고 해야 맞겠어요?

그러기에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님 들이 내면세계로, 정신세계로 들어가 라고 설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 다. 항상 내면세계, 이 뿌리에다가 모 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이 다 내면세 계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철학같이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관리인일뿐, 시자일 뿐이다. 그러나 뛰려면 뛰고 서려면 서는 그런 관리인으로서 '나' 라는 것을 좀 빼놓아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기면서 윈 일이 잘 안되든지 살아가 생겼든지간 에 '나'라는 걸 빼고 내 마음의 주인 이 하는 것이나 거기서만이 나를 이 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병고 없 을 줄 수 있다'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 다. 그것은 바로 이파리나 가지구에 연연하지 않고 뿌리에다 물을 주는 것, 거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 입니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 하 더라도 나를 속 빼고 거기다 맡겨 놓 고 부드러운 말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나와 아이는 감응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인공은 자음으로 전 령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아서 너니 나니가 없이 다 같기 때문입니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맡겨 놓고 내면으 로 밝은 불을 켜려면 그냥 아이에게 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걸 체험해 보는게 생활참선이지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위로 목은 빛을 갖고 아래로 밝은 햇살을 비취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元·氣·血·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삼미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진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경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숙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專敎화하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불행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움
기를 新顔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무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
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
니 무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주 문 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발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회)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미내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하세요!

태아가 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권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도와감상선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화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